



안동지역 민주화운동의 성지 목성동 성당

천주교 목성동주교좌성당(이하 목성동 성당)은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안동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한 시대를 누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붉은 벽돌과 높은 첨탑이 인상적인 고딕양식에 가까운 건축물이었다. 안동 시가지가 흰하게 내려다보이는 목성산 이마 위에 올라앉아 풍수지리로 볼 때도 손색이 없는 명당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니 안동 어디에서 보더라도 높은 산 위에 올라앉은 성당 건물은 눈에 띄게 마련이었다.

외부 사람들이 안동을 둘러보고 이미지를 새긴다면 몇 손가락 안에 들기에 모자람이 없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안동 사람들에게도 목성동 성당이 각별하기는 마찬가지다. 성당 들머리를 지나면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기 마련인 매력이 있었다. 우선 눈에 띄는 구 교구청 건물의 양식도 특이하지만 창문을 빼놓고는 온통 담쟁이덩굴이 뒤덮고 있는 모습은 무척 이색적이었다. 그 옆에 성당으로 오르는 길은 오래된 수목들을 거느리고 있어 운치가 더했다. 그 길을 올라가면 무슨 아늑한 동산이라도 있을



었다. 어느 공원 못지않은 훌륭한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이 지나는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더하여 소중한 추억까지 깃들여 있으니 안동 시민들의 자긍심에 적으나마 이바지한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지리적 아름다움과 건축물의 독특한 멋

목성동 성당의 자연지리적인 아름다움과 건축물이 지니는 독특한 멋은 두고두고 이야기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설명했다고 한다면 목성동 성당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다. 큰 정신과 아름다운 영혼의 울림이 있는 성소라는 점은 상식이니 접어 두고라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유신의 서슬이 시퍼렇던 70년대와 군부독재의 군항 발로 짓이겨지던 80년대에 저항의 외침과 투쟁이 살아 숨쉬던 또 하나의 성지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 목성동 성당은 지금 없다. 지방에서는 비가 새고 마룻바닥에서는 찬바람이 승승 올라오고 붕괴 위험마저 감지되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새 성전이 들어섰다. 다시금 목성동 성당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이 시간에도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과 역사의 씨줄과 날줄에 새겨진 그 소중한 자취는 그리 쉽게 허물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벽체를 이루던 벽돌과 기둥, 서까래와 대들보는 뿔뿔이 흩어졌지만 사람과 역사의 기억 속에 있는 성당의 생명력은 오히려 한층 조밀하게 서로를 끌어안고 더 강고하게 어깨를 견고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과정의 노래와 외침과 투쟁과 눈물과 환희는 벽돌이 되고 기둥이 되고 서까래, 대들보가 되어 훌륭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 성지는 날이 갈수록 빛나는 것이다.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길옆에는 성모 마리아 상이 안동 시내를 굽어보는 작은 동산이 있었다. 가파른 길을 지그재그로 올라가면 그 끝에 검붉은 외양을 지닌 성당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수목들과 오래된 서양 건축의 맛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그리고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신자들에게는 참으로 신성한 공간이었지만, 이런 매력은 어느 시민들의 발길을 무던히도 불러 모았다. 하도 못해 가난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그저 그만인

목성동 성당은 안동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성당으로서 천주교 안동교구의 본당이다. 병인박해(1866년)를 전후하여 난을 피해 이주한 신자들이 마을을 이루고 공소를 중심으로 전교활동을 하다가 1927년에 처음으로 율세동에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후 1949년에 현재의 자리에 옮겨 앉았다가, 1956년의 화재로 인해 재건축되었



현재의 목성동 성당 입구에 있는 예전 교구청 건물(철문 안 붉은 벽돌)은 비어 있고 그 한쪽 작은 건물에 안동 가톨릭농민회가 들어서 있다.

다. 점차 교세가 확장되자 1962년에 증축을 하여 얼마 전까지 사용되었다. 이 건축물은 보기 드물게 하늘에서 보면 거대한 십자가 형태라는 점이 특징이었다.

대구교구에서 분할되어 경북 북부지역을 아우르는 안동교구를 설정하고 목성동 성당이 주교좌본당이 된 것은 1969년 6월 29일 이었다. 교구장은 두봉 주교였다.

그는 새 교구의 기초를 다지려고 행정체계를 확립하면서 조직을 정비하고 경제 질서를 바로 잡는데 주력했다. 한편으로는 1990년까지 주교좌로 활동하며 목성동 성당이 민주화운동의 본산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사회 참여의 성향을 지닌 천주교가 민주화운동에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1974년에 유신정권이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를 구속하면서부터이다. 지학순 주교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긴급조치 1, 4호 위반 혐의를 쓰고 구속된 것이다. 지 주교의 석방을 위하여 천주교가 일어섰다.

안동교구 역시 이 사건에 대응하면서부터 목성동 성당을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바쳤다. 그해 9월 11일, 목성동 성당에서 ‘지학순 주교 석방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그 의미를 두봉 주교는 ‘1975년 사목 방향’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 주교님 사건은 한국 교회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교회가 쇠신되어야 하고 사회 안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많은 이가 절감하게 되었다.

일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사제들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나서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 했던 것이다.(……)

현 시국에 관련된 운동에만 국한되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꾸준히 오래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주변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학순 주교의 구속과 천주교의 변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민주헌정을 유린하는 군법회의에 출두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학순 주교의 양심선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천주교 내부에서도 그 해 9월 23일에 젊은 사제들이 중심이 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등장했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후 이 단체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와 함께 굵직굵직한 시국사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



안동 시내 목성산 자락에 자리한 예전 목성동 성당(왼쪽)과 1987년 민주개혁을 위해 신부들의 단식기도가 열렸던 당시의 모습(오른쪽)

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역할을 하였다.

당시 안동교구는 포교의 주요 대상을 문화와 농민 부문으로 삼았다. 어느 곳보다 이르게 대규모의 문화회관을 건립(1973년)하였으며 사목국에서는 한국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협의회(1977년 8월 24일 창립)를 조직하고 연합회 조직을 건설하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안동지역의 특성상 이 두 부문이 대다수 지역민들과 만날 수 있는 큰 통로로 틀이였기 때문이다. 문화회관은 목성동 성당과 더불어서 민주화운동의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다. 1977년 10월 18일에는 '농민·노동자·양심수인 석방을 위한 기도회'가 열려 류강하, 정호경 신부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 문화회관 안에는 동부동 성당이 있었는데, 10월 30일에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두 신부를 위한 전 교구 차원의 미사가 열리기도 했다.

목성동 성당이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전국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79년 '안동농민회 사건' 싸움을 주도하면서부터다. 이른바 '오원춘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싸움은 7월 30일 열린 기도회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응원하고 지원하는 기도회와 집회로 들불처럼 번

져갔다. 전국의 이목은 안동의 목성동 성당으로 쏠렸다. 아름답고 평화롭기 그지없던 종교 공간이 하루아침에 서슬 푸른 유신정권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요새가 된 것이다. 유리창마다 구호가 나붙고 붉은 색 글씨도 선명하게 현수막이 펼쳐졌다. 밤샘 농성으로 불이 꺼지지 않았고 당국의 탄압은 거셌다.

'오원춘 사건'으로 전국의 이목 집중

'오원춘 사건'은 당시 천주교의 시국발언이 날로 강도를 더해가는 데다가 급기야 1978년 12월 27일에는 한국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까지 창립되자, 탄압 차원에서 당국이 조작한 사건이었다. 그 당시 농민운동은 1978년 '함평고구마투쟁'에서 피해 농민들이 공권력을 상대로 보상을 받아낸 것에 한층 고무되어 있었다.

오원춘은 안동교구 농민회 소속으로 영양 청기분회지역 감사피해보상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장본인이었다. 정보기관이 그를 납치하여 폭행, 협박한 것에 대해 오원춘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범 천주교 차원에서 대응을 한 것이다. 오원춘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었고 법정에서 납치를 둘러싼 진위 여부 공방이 계속되



목성동 성당 김영필 주임 신부는 "당시 가톨릭교회의 역할은 시대적 필요이었다"고 말한다.

었다. 그러던 중 10·26으로 유신정권이 막을 내리자 구속자들이 전원 석방되면서 사건도 끝이 났다. 천주교 차원에서 조직적·장기적으로 투쟁을 한 것이 유신독재를 종식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다. 그 현장이 바로 목성동 성당이었던 것이다.

천주교 안동교구는 1981년 어느 곳보다 먼저 농민운동의 거점이 된 '안동 농민회관'을 건립했다. 축성 미사에는 근 5백 여 명이 참석하여 추수감사제, 농민대회, 한마당 큰잔치를 열었다. 이후 이곳은 활발하게 전개되는 안동지역 농민운동의 교육장이 되었다. 이로써 농성과 기도의 거점인 목성동 성당을 중심으로 집회와 대중강연을 담당한 문화회관, 농민교육의 산실인 안동 농민회관이 이루는 트로이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천주교는 지역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물질 토대가 되었고 그 중심에서 목성동 성당은 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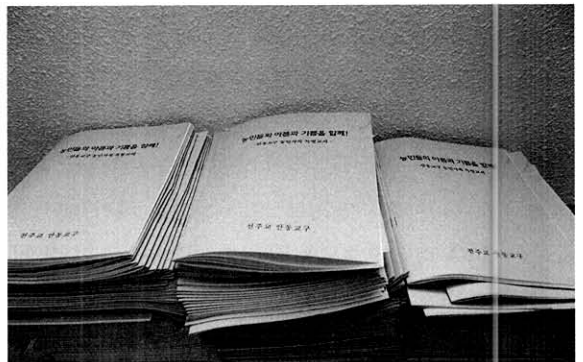
1986년 4월 16일 문화회관에서는 '농민·노동자를 위한 기도회 및 농가부채탕감대회'가 열렸고 이어서 안동 역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이때 안동에서는 최초로 최루탄이 등장했다. 이날 집회도 목성동 성당에서의 농성으로 이어졌다. 9월 1일에는 '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 농성', 9월 3일에는 '고문 및 미국 농·축산물 수입 규탄대회'가 목성동 성당에서 열렸다.

1987년 4월 29일에는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호헌철폐 단식투쟁이 있었다. 10여 명의 사제들과 함께 지역의 농민·노동자·학생 등이 대규모로 참여한 이 싸움은 6월항쟁까지 이어졌고 그 본거지도 바로 목성동 성당이었다.

1988년에는 벽두부터 '민주쟁취 국민운동 전국 농민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장기적인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그해에는 고추 생산비 보장, 농산물 제값 받기, 쌀 생산비 보장, 민주농협 쟁취 등으로 이어지는 전국적인 투쟁이 있었다.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북부 권역도 산발적인 싸움을 전개하다가 10월 2일 안동 농민대회에 5천 명이 집결한 가운데 연합시위를 벌였다. 이때부터 목성동 성당은 연말까지 근 3개월에 걸친 장기투쟁의 거점이 되기도 했다.

목성동 성당은 1989년 여름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당 입구에 가지런히 쟁겨져 있는 가톨릭농민회의 홍보 책자는 여전히 가톨릭교회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하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가 주보 성인인 목성동 성당. 바람이 차도 뛰노는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른다.

합법화 투쟁을 비롯해서, 1991년 5월투쟁, 1992년 민주 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 대선 정국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최근의 효순이·미선이 사건과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까지도 사제들과 시민들의 숨결이 녹아있다. 안동지역 민주화운동의 성지요, 숨 막히는 정국의 허파였으며, 공권력의 무차별 폭력과 대치하던 보호처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통로이기도 했다.

문화회관, 농민회관과 함께 트로이카 시대

날날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목성동 성당이 안동지역의 1970, 80년대 민주화운동의 거점이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안동지역 어느 곳에서 시위를 벌이더라도 늘 재집결하여 수습하고 마무리하던 공간이었다. 장기농성으로 이어질 때는 아예 이곳에서 싸움이 시작됐으며, 또 이곳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전경들과 대치하며 격렬한 싸움을 펼치던 참호이기도 했다. 성당 앞 좁은 도로를 전경들이 점거하고 그 주변을 시민들이 에워싸고 발을 동동 구르던 풍경이 그 시절에는 일상이었다.

아름다운 풍경과 민주화운동의 자취가 남아 있던 목성동 성당은 그 수명을 다했다. 그 유서 깊은 건축물은 허물어지고 새 성전이 들어섰다. 그곳에서 2004년 4월

25일에 있었던 봉헌식 당시 주임 신부였고 안동지역 민주화운동의 핵심에 있었던 조창래 신부와 현재 주임신부인 김영필 신부를 만났다.

“비록 상징적인 공간은 외양을 달리 했지만, 그 역사와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요. 목성동 성당은 역사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쓰인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다른 장소를 빌릴 수도 없었고 우리 천주교 또한 그런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경찰이 맘대로 들어 올 수 없는 곳이 여기다 보니 자연 그렇게 함께 했던 거죠. 교회의 이상과 사회적 움직임이 잘 맞았던 거죠.”

언덕 위의 빨간 집, 그 목성동 성당 대신 새로운 성전이 들어섰다. 비교적 평안해 보이는 공간의 이미지에 또 어떤 역사가 기록될 지 궁금하다. 그렇더라도 이 공간이 종교적으로만 쓰여도 무방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안 상 학

1962년 경북 안동 출생. 198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1987년 11월의 新川」이 당선. 시집 『그대 무사한가』(1991), 『안동소주』(1999), 『오래된 엽서』(2003)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대의 불꽃' 중 『권중대』(2004)편 발표.